

2021년 9월 3주 |

# 키움 ESG Brief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I 글로벌 ETF/주식 김진영 02-3787-4870 / jykim@kiwoom.com

RA 이지민 02) 3787-4776 / jimin.lee@kiwoom.com



## Issue Check:

### 바이든 행정부,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50%로 확대

- 바이든 행정부, 2050년까지 미국 내 태양광 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 비중을 4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 발표. 美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체 전력 공급에서 태양광 비중은 3% 수준으로, 향후 이 비중을 2035년까지 40%, 2050년 45%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 DOE에 따르면,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태양광 에너지 설비를 2배씩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 또한 2025~2030년 사이에는 2020년대비 Capa를 매년 4배 늘려야 할 것으로 추정.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지난해 약 80GW 수준의 미국 태양광 발전 규모는 2050년 1,600GW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오늘날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에서 쓰이는 전체 전력보다도 많은 수준.

Biden Administration outlines

how solar could be nearly half of electricity supply by 2050



자료: Reuters

# 주간 ESG 뉴스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Update (9/6~10)

### ▲ 기후 및 환경 관련

9/8	<p><b>에너지기업, ESG 지표 개선에 '블루수소' 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수소가 주목받는 가운데, 블루수소* 생산이 에너지기업의 ESG 지표 개선에 기여 가능.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높은 가격이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 (오일프라이스닷컴). 이에 따라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사용해 탄소집약도를 낮추고 경제성도 갖춘 블루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동시에 블루수소 생산과 사용이 에너지기업의 ESG 평가등급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li> <li>- 지난 5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수소 사용량은 2020년 9,000만톤에서 2030년 2억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저탄소 수소의 비중은 2020년 10%에서 2030년에는 7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까지 저탄소 수소의 절반은 석탄과 천연가스를 사용해 생산할 것으로 예상. 또한 밴쿠브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연간 수소 생산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연간 2조 5000억 달러에 달하고 11조원의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 게다가 2050년까지 수소가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달할 것 예상 <a href="https://bit.ly/3yZIEZW">https://bit.ly/3yZIEZW</a></li> <li>*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 포집 및 저장(CCU: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을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생산한 수소</li> </ul>
9/8	<p><b>Biden Administration outlines how solar could be nearly half of electricity supply by 205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든 행정부, 2050년까지 미국 내 태양광 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 비중을 4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 발표(2035년까지 40%, 2050년까지 45%).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체 전력 공급에서 태양광 비중은 3% 수준</li> <li>- 미국이 지난 10년 간 비용 감축 및 세액공제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 결과 미국 내 태양광 설치는 2020년에 최고 수준을 기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태양광 에너지 Capa 증량 규모를 매년 2배씩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추정 됨</li> <li>- 미국 에너지부 태양광 에너지 기술국과 국립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계획이 실현되면 미국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규모는 2050년 1,600 GW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오늘날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에서 쓰이는 전체 전력보다도 많은 수준. 또한 태양광 전력 공급 비중 확대를 통해 2035년까지 미국 내 대부분의 가정에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약 1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a href="https://cnb.cx/3hiPL8w">https://cnb.cx/3hiPL8w</a></li> </ul>
9/8	<p><b>New York sets 2035 zero-emission passenger car goal</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주, 2035년까지 주 내 판매되는 모든 신형 승용차와 경량 트럭을 탄소배출 제로 모델로만 생산하는 법안에 서명. 해당 법안에 따르면 2045년까지 중형 및 대형 차량에 대한 유사한 목표를 적용하고, 2035년까지 무공해 차량 100% 판매를 목표로 보다 많은 무공해 차량 생산이 요구될 예정</li> <li>-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뉴욕시의 차량 소유자 200만명 중 40만명이 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며, 2030년까지 10,000개의 도로변 충전소 네트워크를 설치할 것을 약속</li> <li>-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2035년부터 가솔린 승용차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뉴욕 등 기타 10개 주에서 美 행정부에 2035년까지 모든 신형 승용차와 소형 트럭 배기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감축하는 기준 설정하도록 요청 <a href="https://reut.rs/315A85w">https://reut.rs/315A85w</a></li> </ul>
9/8	<p><b>대형 자산운용사, 비상장사에도 기후 정보 공개 요구... '그린워싱' 원천봉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버거버먼과 누빈, M&amp;G, 콜러 캐피탈 등 총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그룹이 투자 대상인 1000개 이상의 비상장 기업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대형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에도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남</li> <li>- 영국 비영리기구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비상장 기업은 상장 기업과 달리 정보 공개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ESG 성과와 정보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 이에 따라 CDP는 자산운용사들과 협업을 통해 비상장사들에 특화되고, 표준화된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개 설문 작성에 향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많은 비상장사가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개시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힘</li> <li>- 콜러 캐피탈의 아담 블랙 ESG 투자 책임자, 비상장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이 탄소 배출이나 수자원, 산림파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공개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수. 이러한 활동은 향후 투자자에게도 투자 결정 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 <a href="https://bit.ly/38NzIAj">https://bit.ly/38NzIAj</a></li> </ul>
9/10	<p><b>White House targets 20% lower aviation emissions by 203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든 행정부, 미국 항공산업의 탄소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부터 항공사들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3.5조달러 부양책의 일환으로 항공사들이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 시 인센티브 지급하는 정책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li> <li>- 유나이티드, 델타, 아메리칸 항공을 포함한 미국 항공사 연합은 지난 8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항공유(SAF) 사용을 30억 갤런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9일 백악관 관계자들과 화상 회의를 통해 2030년까지 항공산업에서 탄소배출권을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li> <li>- 한편 美 항공운송협회(Airlines for America), 올해 3월, 2030년까지 20억 갤런의 지속가능 항공 연료(SAF)를 생산하고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링크: <a href="https://reut.rs/2X38vI4">https://reut.rs/2X38vI4</a>) <a href="https://reut.rs/319r8vZ">https://reut.rs/319r8vZ</a></li> </ul>

9/9	<p><b>Global hydropower industry launches ESG standard to attract investor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력발전 지속가능성 위원회(HSC), 수력발전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ESG 성과 표준기준 설정</li> <li>- 수력 발전은 2020년에 전세계 전력의 1/6 을 공급했지만, 새로운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허가 과정의 장기화, 환경 평가 리스크, 지역 사회의 반대 등으로 일부 무산. 이에 대해 Ashok Khosla HSC 회장은 수력발전 섹터 내 프로젝트들 장려를 위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 이는 지역사회, 정부, 투자자들에게 손익이나,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어 큰 확신을 줄 것이라고 설명</li> </ul> <p><a href="https://reut.rs/3trjO2x">https://reut.rs/3trjO2x</a></p>
9/9	<p><b>중녹색 전력 거래 개시한 첫날 거래량 79억kwh 넘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발개위-에너지국, 최근 스테이트 그리드(STATE GRID)의 남방전력망 공사에 녹색 전력 거래 시범 사업을 허가. 7일부터 첫 개시된 녹색전력 거래에는 17 성에서 259 개 업체가 참여. 전력량 79.35 억 Kwh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확인. 그 중 스테이트 그리드 관할 지역 내에서 68.98Kwh, 남방전력망 관할 지역 내 거래량은 10.37Kwh 기록</li> <li>- 이번 시범 업무의 목표는 '탄소 배출 절감 및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녹색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시장 시스템과 장기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있음. 발개위 관계자는 이번 시범 사업이 친환경 전력 거래를 통해 일부 사용자들에게 풍력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li> </ul> <p><a href="https://bit.ly/3BSY2HW">https://bit.ly/3BSY2HW</a></p>
9/9	<p><b>'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GHIAA)' 설립 본격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 일 민간 중심의 수소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주요국 수소산업협회와 '글로벌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발족을 위한 공동의향서(LOI)를 체결. 여기서 GHIAA 발족은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플랫폼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의미</li> <li>- 의향서 체결식에는 한국 (H2KOREA)을 포함한 주요국 대표 13 개 수소 산업협회가 참여했으며, GHIAA 는 앞으로 1 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22 년 중 정식 발족식을 가질 예정. 향후 민간 중심의 교류 플랫폼, 데이터 허브 구축과 더불어 국제 수소산업 협력·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li> </ul> <p><a href="https://bit.ly/2Vt7AKg">https://bit.ly/2Vt7AKg</a></p>
9/10	<p><b>EU wants world-first carbon border levy to hit more sectors after 203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erassimos Thomas EU 집행위 세무부 국장, 2030 년 이후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포함하여 더욱 많은 산업과 제품에 탄소국경세 적용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철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제조품에도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li> <li>- Thomas 국장, 향후 집행위는 무역 수급, 상품 가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행정적 부담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며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은 맞지만 그 범위는 여전히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리스크가 있는 산업들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설명</li> <li>- 특히 EU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시키려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탄소 누출의 리스크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 특히 정유공장, 세라믹 및 유리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약 60개의 산업이 탄소 누출 리스크에 처해있는 것으로 분석</li> </ul> <p><a href="https://reut.rs/2VDHV1l">https://reut.rs/2VDHV1l</a></p>
9/10	<p><b>工信部公布《免征车辆购置税的新能源汽车车型目录》(第四十六批) 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공신부, &lt;신에너지자동차 구매세 면제 대상 차종 리스트&gt;를 발표. 리스트 내에는 리스트 내 샤오펑의 P5, P7, G3i, NeZha 의 U, V 시리즈, BYD 의 e3 등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li> </ul> <p><a href="https://bit.ly/3lamONh">https://bit.ly/3lamONh</a></p>

▲ 기타/통합

9/4	<p><b>U.S. securities regulator scrutinizes funds over ESG labels -sourc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ESG 펀드 운용 기관들에게 ESG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 SEC 는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ESG 투자 내 그린워싱 문제에 대해 조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li> <li>- SEC 는 올해 초 투자자문위원회와 ESG 펀드들을 검토한 결과, ESG 투자와 관련해 '잠재적인 오해의 소지'와 부적절한 관리 요소들이 발견되었다고 주장. 특히 지난달 DWS 가 ESG 운용 상황 등을 허위로 공시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ESG 운용사들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li> <li>- 모닝스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유입된 미국 ESG 펀드 규모는 510 억 달러로 ESG 펀드 운용에 투명성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li> </ul> <p><a href="https://reut.rs/3BWbj2t">https://reut.rs/3BWbj2t</a></p>
9/9	<p><b>EU 소셜 택소노미에 관한 피드백에 담긴 내용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7 월 EU 가 공개한 '소셜 택소노미'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 기간이 6 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고 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이 밝힘. 소셜 택소노미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판별하는 원칙을 담은 것으로, 친환경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의 소셜 버전으로 볼 수 있음. EU 집행위는 지난 2018 년 3 월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수립하면서, 10 개의 액션플랜 중 무엇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인지를 분류하는 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시한 바 있음</li> <li>- 하지만, 소셜 택소노미가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일각의 의문도 제기. 7 월 12 일 공개된 소셜 택소노미를 보면, EU 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나눔. 수직적 차원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사회/경제적 수준을 높이는 지에 맞춰진 경제활동을 의미. 물, 음식, 주택, 보건, 교육, 교통운송, 통신 및 인터넷, 깨끗한 전기 등이 여기에 해당. 수평적 차원은 경제활동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의 인권이 존중 및 보호받았는 지를 고려. 양질이 일자리 보장, 소비자 이익 증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활성화 등이 해당</li> </ul> <p><a href="https://bit.ly/3A4rxGr">https://bit.ly/3A4rxGr</a></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국내외 산업/기업 ESG 동향 Update (9/6~10)**

▲ **기후 및 환경 관련**

9/6	<p><b>新能源汽车领域景气度高企，几大造车新势力竞争加剧</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업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이어지면서, 관련 시장 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 지난 몇 년 간 CATL(300750.CH), BYD(002594.CH) 등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공격적인 Capa 확대 지속</li> <li>- 5개월 전 샤오미(1810.HK)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뒤, 최근 베이징시 당국에 전기차 기업 설립에 대한 정식 등록을 마친 상황. 또한 샤오핑(XPEV.US)은 자오칭 내 생산공장 2차 확장공사에 착수했는데, 내년 상반기 완공 후 예상 연 Capa는 20만 대. 광저우 공장은 내년 3분기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li> <li>- BYD(002594.CH)의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 발표에 따르면 1~8월 전기차 누적 판매량 총 266,480만 대 (YoY+192.64%)이며, 8월 배터리 판매량은 약 3.521GWh인 것으로 집계</li> </ul> <p><a href="https://bit.ly/3E14tw">https://bit.ly/3E14tw</a></p>
9/7	<p><b>Wind turbine giant Siemens Gamesa claims world-first in blade recyclin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풍력발전업체 지멘스가메사, 해상풍력에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최초의 재활용 가능한 풍력 터빈 블레이드 개발. 동사는 독일 전력 유틸리티 기업 RWE와 협력하여 2022년 독일 Kaskasi 해상풍력 단지에 재활용 가능한 블레이드 설치 후 시범 운영할 예정</li> <li>- 지멘스가 대주주인 RWE는 미래 해상풍력 단지에 여러 세트의 재활용 가능 풍력 터빈 블레이드 배치를 목표로 현재 EDF Renewables와도 협력 중. 뿐만 아니라 독일에 본사를 둔 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업인 WPD와도 유사하게 협업 진행 중</li> <li>- 풍력 터빈 블레이드는 재활용하기 어려운 재료로 사용되어, 수명이 다하면 일반적으로 매립지에서 처리하는데, 현재 전 세계 정부가 재생에너지 Capa를 늘리려고 노력함에 따라 앞으로 전 세계 풍력 터빈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풍력 터빈 블레이드 폐기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찾기 위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예정</li> <li>- 지난 몇 년 동안 풍력 에너지의 많은 주요 업체들이 풍력 터빈 블레이드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발표. 그 예로 올해 6월 덴마크의 Orsted는 전 세계 풍력 발전 단지 내 동사의 터빈 블레이드를 모두 재사용, 재활용하고 복구할 것이라고 발표. 또한 지난 해 12월 GE Renewable Energy와 Veolia North America는 미국 육상 풍력 터빈에서 제거된 블레이드를 재활용하기 위해 다년간의 계약에 서명</li> </ul> <p><a href="https://cnb.cx/2YCws3n">https://cnb.cx/2YCws3n</a></p>
9/7	<p><b>Hyundai wants hydrogen fuel cell versions of all its commercial vehicle models by 202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차그룹, 2028년까지 상용차 전 모델의 수소연료전지 버전 개발 계획. 2023년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연료 전지 차량 가격을 배터리 전기차와 견줄 만한 수준으로 달성 목표</li> <li>- 연료 전지 측면에서 현대 그룹은 차세대 시스템이 100k와 200kw 버전으로 제공될 것이며 비용은 50% 이상 절감되고 총 패키지가 부피는 30% 감소하며 출력은 2배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힘</li> <li>- 수소 기술은 다양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고 산업 및 운송 분야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음.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의 잠재력은 상당하지만 현재 수소 연료 전기 기술이 상용차 주류 옵션으로 발전하려면 수소 인프라 확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함. 아직까지 연료 전지 내구성과 신뢰성에서 차량 비용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li> </ul> <p><a href="https://cnb.cx/3C0YDay">https://cnb.cx/3C0YDay</a></p>
9/7	<p><b>Mubadala Petroleum, Eni team up on energy transi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ni, Mubadala Petroleum과 협력하여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전환 분야에 공동투자 추진 중. 두 기업은 중동, 북미, 동남아, 유럽 등의 지역에서 수소 및 탄소포집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MoU를 체결.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Mubadala Petroleum은 ESG 문제 및 에너지 전환 목표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 방안으로 MoU를 추진</li> <li>- Eni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발표했으며, 청정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UAE 지역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Mubadala Petroleum의 경우 지난 3년간 탄소 배출량을 25% 감축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여 줌</li> </ul> <p><a href="https://reut.rs/3hitUhh">https://reut.rs/3hitUhh</a></p>
9/8	<p><b>Shipping powerhouse invests in Californian fuel start-up backed by Warren Buffet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최대 해운사 Maersk, 미주 지역과 아시아에서 친환경 바이오 메탄 생산을 시행하기 위해 농업 및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연료로 전환시키는 스타트업 WasteFuel에 투자. 동사는 이번 투자를 통해 WasteFuel의 바이오리파이너리(biorefineries) 사업을 개발하고, 회수 불가능한 폐기물로부터 지속가능한 연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li> <li>- Maersk의 탈탄소화 담당자 Morten Bo Christiansen, 메탄을 연료 선박에 필요한 양의 친환경 연료를 조달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을 상당히 증대시켜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업계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지속가능한 연료 유통과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li> <li>-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해운 산업은 전 세계 에너지 산업 Co2 배출량의 약 2%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이 가운데 전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에 따라 해운 산업도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li> </ul> <p><a href="https://cnb.cx/3E4irM3">https://cnb.cx/3E4irM3</a></p>
9/9	<p><b>Google Commits to be Water Positive, Replenishing More Water than Consumed by 203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글, 2030년까지 물을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보충하고, 회사가 지역사회에 물 안전과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 해당 공약에 따르면 구글은 회사 사무실과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되는 물의 120%를 보충하고, 물 부족 지역에 초점을 맞춰 지역사회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li> <li>- 구글은 목표 달성을 위해 1) 책임 있는 물 사용 촉진, 2) 사무실 및 데이터 센터 전반에 걸친 회사의 수자원 관리 강화, 3)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강화와 같은 활동을 할 계획. 구글 COO Kate Brandt는 '구글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 언급</li> </ul> <p><a href="https://bit.ly/3yYfsBo">https://bit.ly/3yYfsBo</a></p>

9/9	<p><b>Samsung Receives its First Global Carbon Footprint Certification for Logic Chip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전자, 영국 카본 트러스트(The Carbon Trust)로부터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제품 4종에 대해 '제품 탄소 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을 획득. 제품 탄소 발자국을 획득한 제품은 모바일 SoC '엑시노스 2100', 모바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HM2', 디지털 TV SoC 'S6HD820', 타이밍 컨트롤러 'S6TST21' 등 고성능 시스템반도체 4종으로 구성</li> <li>- 2019년 반도체 업계 최초로 메모리 제품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총 14개 제품에 대해 탄소 저감 인증 취득. 올해 6월에는 반도체 전 사업장에 대해 '탄소, 물, 폐기물 저감' 인증을 받고 '트리플 스탠다드' 라벨을 업계 최초로 취득한 데 이어, 시스템반도체 제품까지 환경 인증 대상을 확대</li> </ul> <p><a href="https://bit.ly/3ndva9v">https://bit.ly/3ndva9v</a></p>
-----	---

▲ 기타/통합

9/8	<p><b>이제 ESG가 대세...여행·관광 산업도 도입 서두른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투어 8월 초 ESG 경영 도입, 자사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으로 ESG 교육 진행하고 여행업계 ESG 경영 확산 위해 노력. 글로벌 여행 테크 기업인 야놀자도 경희대 H&amp;T 애널리틱스센터와 협약 맺고 ESG 경영 연구 진행.</li> <li>- 한국관광공사를 비롯, 한국관광 진흥정책 이행하는 15개 공공기관들의 협의체인 '전국관광기관협의회'에서 관광분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친환경 '착한여행' 릴레이 캠페인을 9월부터 연말까지 추진. 관광산업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약 5~8%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탄소중립정책 적극 이행과 친환경 여행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li> <li>- 인천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전국 광역 단위로 진행하며, 여행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플로깅(쓰레기 줍기+조깅), 비치코밍(해변 정화 활동), 에코 트레킹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 또한, 한국관광공사 신규 여행구독 서비스 '가볼래-타' 등 다양한 채널로 친환경 여행 콘텐츠 및 상품 홍보해 친환경 여행 문화 확산 구상</li> </ul> <p><a href="https://bit.ly/3jTFEbl">https://bit.ly/3jTFEbl</a></p>
-----	---

9/8	<p><b>Saudi Arabia's PIF hires banks to advise on ES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Credit Agricole,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HSBC, 스탠다드 차티드 5개의 은행으로부터 ESG 관련 자문 서비스 받을 계획. 이는 ESG 관련 투자 기준을 마련하여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 한편 JP Morgan 과 HSBC는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의 ESG 관련 투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 돼</li> <li>- PIF의 ESG 투자 기준이 마련될 시, 향후 그린본드의 대규모 발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특히 PIF가 소유하고 있는 Red Sea Development Company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동되는 호텔을 짓기 위한 그린본드를 올해 초에 발행하면서, 향후 관련 채권의 추가적인 발행에 대한 기대감 확대</li> </ul> <p><a href="https://reut.rs/3hjHmBw">https://reut.rs/3hjHmBw</a></p>
-----	---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ESG 투자 동향 Update (9/6~10)

▲ 주식 및 펀드 시장

9/7	<p><b>Next generation of heat networks to power UK's green revolu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英 정부, 향후 15년 내 가스 보일러 사용 중단을 목표로 약 2억 7천만 파운드(3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 구성. Green Heat Network Fund(GHNF)로, 2022년부터 많은 마을과 도시에 적용될 열 펌프, 태양열 및 지열 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기술의 열 네트워크(Heat Network)를 중점으로 지원할 예정</li> <li>- 열 네트워크는 건물 중앙에 센터를 마련해 열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가스 보일러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난방 시스템을 배제하고 효율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음. 현재 영국에서는 1만 4천개 이상의 열 네트워크가 48만명의 소비자들에게 난방 시스템을 제공 중</li> </ul> <p><a href="https://bit.ly/3BWb8GL">https://bit.ly/3BWb8GL</a></p>
9/7	<p><b>Fidelity launches global fund to capture opportunity from climate solution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델리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 Sustainable Climate Solutions Fund 론칭. 이 펀드는 전기차, 재생 에너지, 산업의 자동화 및 친환경 수소와 같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 진행</li> <li>- 포트폴리오 수석 매니저 Velislava Dimitrova, 기후 변화는 전 세계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탈탄소화 정책 시행하도록 불을 지폈고, 세계는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급히 탄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li> <li>- 이번엔 새롭게 론칭된 펀드는 다른 기후 펀드들과 달리 탄소 방지(carbon avoidance)가 아닌 탄소 감축에 초점. 탄소 저배출 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난 150년 동안 상승해온 온실가스 배출 상태를 되돌리기에 충분치 않으며, 동사의 펀드는 사회의 탈탄소화를 도울 수 있는 기존의 혹은 새로운 솔루션들을 찾아 투자 진행할 계획</li> </ul> <p><a href="https://bit.ly/2X3Aq4c">https://bit.ly/2X3Aq4c</a></p>
9/8	<p><b>Morningstar joins race to provide direct indexing servic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rningstar, 지수 개발 전문 기업 Moorgate Benchmarks 인수를 통해 BlackRock, Vanguard 및 Morgan Stanley 와 같이 직접 인덱스를 개발하는 direct indexing 산업 부문 진출. 이번 인수를 통해 동사는 개인의 선호도에 특화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할 수 있게 될 예정. 투자자들은 direct indexing 를 활용하여 세액 공제를 위한 TLH(tax-loss harvesting)* 전략을 통해 세금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li> <li>- Cerulli Associates 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투자상품 중 direct indexing 전략 상품의 규모는 2019년 \$3 천억에서, 2030년 \$4.7 조(전체 운용사 AUM 총 합 중 8%)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li> <li>- Morningstar 유럽지부 Index 사업부문 차기 담당자가 될 Tobias Sproehle 에 따르면, 특히 ESG 및 기타 동인들이 향후 미래에 한층 더 맞춤형 인덱스 산업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미래의 투자자들은 현재 우리보다 더욱 높은 유연성을 활용하여, 투자 포트폴리오 바스켓에 들어갈 종목을 명확히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li> <li>- 한편 지난 해 Morgan Stanley 는 direct indexing 글로벌 선두주자 Parametric 을 인수했고, BlackRock 은 2020년 11월 해당 업계 2위인 Aperio 를, Vanguard 는 Just Invest 를 인수한 바 있음</li> </ul> <p>* 평가손실이 난 투자 포지션을 팔아 확정함으로써 전체 실현 수익률과 세금을 줄이는 방식</p> <p><a href="https://on.ft.com/3A8WGsg">https://on.ft.com/3A8WGsg</a></p>
9/8	<p><b>APG launches first index funds to tap Dutch sustainability driv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 운용 전문기관 APG 자산운용, 동사 최초로 지속가능성 테마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출시 예정. 이는 고객들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지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li> <li>- APG 자산운용은 지수 제공 업체 Qontigo,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BlackRock 과 협업하여 iSTOXX APG World Responsible Investment 인덱스 제품 5개를 출시할 예정. 각 인덱스는 선진국주식 인덱스인 iSTOXX World-A 인덱스를 기반으로, ESG 필터를 적용하고 일부 특정 기업들을 제외할 계획. 제외시키는 방법 외에 또 다른 옵션으로는 ESG 리더 기업을 선별하거나, 탄소 배출량이 낮은 기업 혹은 지속가능성 성과가 우수한 기업들을 선택하는 방안 상존</li> </ul> <p><a href="https://reut.rs/3zX99j">https://reut.rs/3zX99j</a></p>
9/9	<p><b>ETFs struggle to adapt to EU's new SFDR sustainable fund rul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의 SFDR, 환경/사회적 특성을 촉진시키는 펀드를 Article 8 로,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펀드들은 Article 9 로 분류. Morningstar 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리서치 담당 Hortense Bioy 에 따르면, 액티브 펀드는 지속가능한 전략에 맞춰 Vehicle 을 조정할 수 있지만 패시브 펀드는 Article 8, 9 기준에 맞추기 위해 더욱 과감한 변화가 필요. 액티브 전략은 포트폴리오 변경이 용인될 수 있으나, 패시브 펀드는 투자 규정을 변경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투자 제안이 된다는 것</li> <li>- 한편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액티브 Ucits 펀드는 패시브 펀드보다 친환경 자산 비중이 2배 높은 것으로 집계. Ignites Europe 의 연구 결과, 인덱스 펀드 및 ETF 자산 중 20%가 Article 8, 9 에 해당하는 상품이지만, 액티브 펀드 자산에서는 39% 비중 차지</li> </ul> <p><a href="https://on.ft.com/3E6m5Fh">https://on.ft.com/3E6m5Fh</a></p>

▲ 채권 시장

9/7	<p><b>GAM launches climate change-focused bond strateg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M Investments, 기후 변화 솔루션을 위한 글로벌 채권 시장 내 100 조 달러의 자금 자본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채권 전략 공시. 해당 전략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유럽 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그린 본드에 투자 진행. 그린 본드 평균 등급은 BBB+로 SFDR Article 9로 분류</li> <li>- GAM은 은행들이 크고 작은 기업들을 위한 주요 자금원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환경 변화에 중요한 역할 수행 중이라고 설명. 유럽 은행들은 2021년 상반기에만 총 1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린본드를 발행했으며, 앞으로도 그린 본드 발행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li> </ul> <p><a href="https://bit.ly/3DSNPxj">https://bit.ly/3DSNPxj</a></p>
9/7	<p><b>Mondelēz Steps into Sustainable Finance Market with Inaugural €2 Billion Green Bond Offerin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회사 Mondelēz, 2029년 9월 만기 6.5억 유로(0.250%), 2032년 9월 만기 6.5억 유로(0.625%), 2041년 9월 만기 7억 유로(1.250%), 총 20억 유로 규모의 그린본드 발행. 이는 포장 식품 및 소비재 산업에서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임</li> <li>- Mondelēz는 그린본드 수익금을 지속 가능한 원료 공급, 포장재 폐기물 감소, 기후 변화 대처에 도움이 될 프로젝트에 할당할 예정</li> <li>- Mondelēz의 부사장 Christine McGrath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업이 올바른 일을 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어야 할 때이며, ESG 투자가 이러한 사명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함. 또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li> </ul> <p><a href="https://bit.ly/3hclNmJ">https://bit.ly/3hclNmJ</a></p>
9/7	<p><b>ESG 채권 발행 쉐리...LGD·CJ제일제당 수요예측 '홍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G 디스플레이(신용등급 A+, 긍정적·안정적)와 CJ제일제당(AA, 안정적)이 잇달아 회사채 수요예측을 진행. 먼저, LG 디스플레이가 진행한 진행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제 43-1~2 회차) 수요예측에는 총 1조 2200억 원에 달하는 기관투자가 매수 주문을 한 것으로 집계. 트랜치별로 살펴보면 3년물 2,000억 원 모집에 8,050억 원, 5년물 1,000억 원 모집에 4,150억 원이 모집된 것으로 분석. 동사는 수요 예측 결과를 고려하여 발행액을 최대 5,000억 원으로 증액하는 사안 검토할 예정</li> <li>- LG 디스플레이의 회사채는 2년 만에 발행되는 것으로, '19년 2월 당시 'AA-' 등급에서 현재 'A+' 등급으로 하향되었으나 수요 폭발한 모습. 회사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확실시되며 A 등급의 금리 매력과 ESG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강점이 부각된 결과로 분석. 이번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파주 공장 친환경 OLED 설비 투자에 사용될 예정</li> <li>- CJ제일제당도 이날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제 27-1~3 회차) 수요예측을 진행했고, 총 1조 1800억 원에 달하는 기관투자가 자금이 모집됐는데 특히 사회적채권인 10년물 300억 원 모집에는 7배가 넘는 2200억 원의 매수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li> <li>- CJ제일제당은 일반 공모채로 조달한 1700억 원의 자금을 채무상환으로 사용할 예정. 사회적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동반성장펀드 조성으로 중소 협력사 대상 금융지원에 나설고, 대금지급주기 단축에도 사용할 계획</li> </ul> <p><a href="https://bit.ly/2WVkmSj">https://bit.ly/2WVkmSj</a></p>
9/9	<p><b>원자력과 가스 빠졌다... 10월 발행 340조 EU 녹색채권 프레임워크 발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는 10월 발행 될 EU 집행위의 녹색채권 프레임워크에 가스 및 원자력 부문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남. 차세대 EU(NextGenerationEU)라는 명칭의 EU의 경제회복 패키지 중, 이번에 발행되는 것은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코로나 19 회복패키지(COVID-19 recovery package)' 기금으로 전체 약 8천억 유로 가운데 최소 30%인 2,500억 유로를 녹색채권으로 조달할 예정. 이 가운데 EU는 10월 첫 녹색채권 발행을 준비하면서 최근 녹색채권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는데 유력티브에 따르면 해당 프레임워크에서 가스와 원자력 부문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남</li> <li>- EU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유럽연합 의회 내부의 분쟁 원인인 원자력과 가스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은 이번 녹색채권 틀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주장. EU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현지에서는 올 가을 평가가 이뤄지는 EU 탄소노미에서 원자력과 가스가 포함되지 않지를 두고 부정적인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li> <li>- 한편 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관은 총 9개의 지출 범주가 적용. 대표적으로는 ▲녹색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에너지 효율 ▲청정에너지(풍력, 태양광, 해양, 바이오매스) ▲기후변화 적응 ▲물 &amp; 쓰레기 관리 ▲정정 운송시스템 ▲자연보호 및 생물다양성 등이 해당</li> </ul> <p><a href="https://bit.ly/3z7aHW5">https://bit.ly/3z7aHW5</a></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 ESG 이벤트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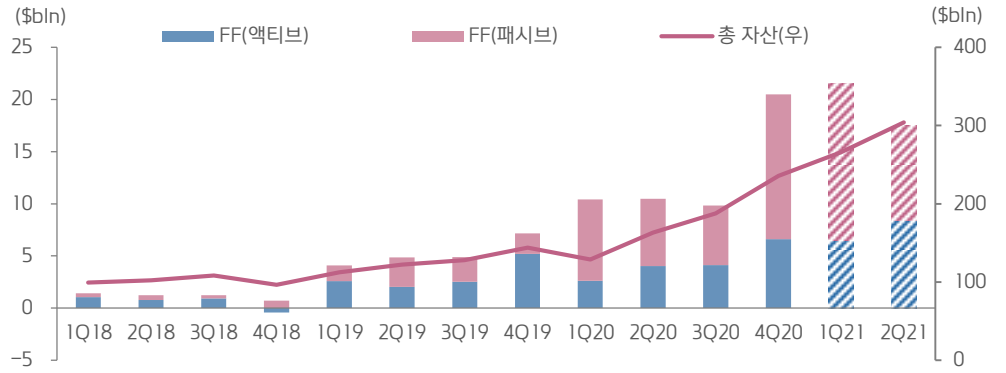
날짜	국가	이벤트	내용
3/10	유럽	<b>SFDR 발효</b>	-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 기관들, ESG 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손실, 환경,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는 투자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됨. 18.3월 EU 지속가능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금융권 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제고 목표
4/21	유럽	<b>NFRD 개정안 발표</b>	- EU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최종 개정안 발표. 기존 NFRD 용어를 CSRD 로 변경 제안하고, NFRD 규칙의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 등 포함. 이번 제안에 따라 비 EU 법인의 EU 자회사도 의무보고 대상이 되며, 국내 대기업도 적용 대상
5/24~25	유럽	<b>EU 정상회의</b>	- 7월 EU 집행위의 기후법(Fit for 55)입법에 앞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따른 노력과 비용 분담 방법 논의 하기 위한 회담 개최 - 이날 특별 회담을 통해 코로나 19 및 기후 변화, 벨라루스 제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EU 대응책을 논의. 회원국에 기후 변화의 환경-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1월 COP 26 회의 앞두고 G20 회원국들의 열정 보여줄 것을 장려
5/29	한국	<b>2050 탄소중립위 출범</b>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 공식 출범 -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통합한 자문기구로, 향후 경제-산업-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예정
5/30~31	한국	<b>P4G 서울정상회의</b>	-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등 12개 국가 참여 -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계획 논의
6/28	유럽	<b>유럽 기후법 승인</b>	- 2050년까지 EU에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유럽 기후법"을 승인.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골자로 함 - 앞서 4월 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며 28 일(현지시간) 합의안에 공식 승인한 것. 탄소 중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은 유럽이 처음
7/14	유럽	<b>Fit for 55 패키지 발표</b>	- 2030년까지 유럽내 탄소 55% 감축(1990년 대비)을 위한 전략으로 유럽집행위는 12개의 입법안 발표. 구체화된 탄소국경조정세(CBAM) 초안, 탄소거래제(ETS) 개정안 등이 포함 될. 이 외에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항공-해운-육상운송 산업 등에서도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된 모습. 향후 Fit for 55와 관련된 포괄적인 방안은 앞으로 약 2년에 걸쳐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심의와 승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
7/16	중국	<b>배출권거래제 도입</b>	- 중국 전체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상하이 거래소 한 곳에서 통합돼 진행 시작. 초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화석 연료로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분의 1을 발생시키는 중국의 전력 기업 2,225곳을 대상으로 배출권 배정했고, 향후 적용 업종을 넓혀나갈 계획
3분기 중	유럽	<b>ESAP 설립 입법안 상정</b>	- EU 공통의 ESG 데이터 수집을 위한 유럽 단일접속지점(ESAP, European Single Access Point)을 설립하는 입법안 상정
10월 중	한국	<b>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적용</b>	-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
	한국	<b>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b>	- 탄소중립 위원회,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2030 NDC 상황과 함께 10월에 발표하기로 결정. 7월에는 2050 시나리오 위원회 안을, 8월까지 NDC 위원회안을 마련
	중국-EU	<b>중-EU 탄소노미 개발 논의</b>	- 양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인정되는 탄소노미 시행을 목표로, G20 정상회의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10/11~24	글로벌	<b>생물다양성협약 COP15</b>	-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 2020년 이후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적 프레임워크 만들기 위한 논의 이뤄질 것으로 전망. 생물 다양성의 손실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식서지 보호, 수질 개선, 외래종 통제 등) 등 논의
11/1~12	글로벌	<b>UN 기후변화협약 COP26</b>	-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며, 각국 정상 및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행동 서약 등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기존 20년 11월에서 1년 연기 됨 - 또한 ESG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ISSB) 창설을 공식화 할 것으로 예상
4분기 중	한국	<b>K-ESG 가이드라인 마련</b>	- 기업의 ESG 초기 진입 부담 완화와 공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의 K-ESG 가이드라인 마련.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기관의 평가체계 등을 분석해 핵심-공통문항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마련('21.12) - 기업 규모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구체화-차별화는 '22~'23년 진행, 국제 논의동향 등을 지속 반영할 예정
	한국	<b>K-탄소노미 마련</b>	- 환경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탄소노미 마련. ESG 중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 민간평가 기관의 지표를 분석해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 당초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와의 조율이 장기화되며 4분기 중으로 연기
	한국	<b>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도입 확산</b>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 가점 부여 등을 통해 도입 확산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 '21.6월 162개 기관이 채택 시행 중
	아세안	<b>ASEAN 탄소노미 개발 착수</b>	- 올해 말까지 '아세안 지속가능금융 분류법' 개발 착수 예정 - EU 탄소노미 규정과 같은 지속가능한 금융 지원을 위한 아세안의 공동언어 필요성 지적 - 앞서 이를 위해 싱가포르 및 태국은총재 등 8명으로 구성된 탄소노미 위원회 발족

자료: 언론보도 종합,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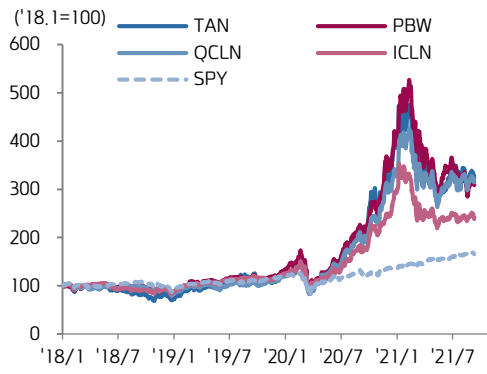
# ESG Chart

## 미국 ESG 펀드 자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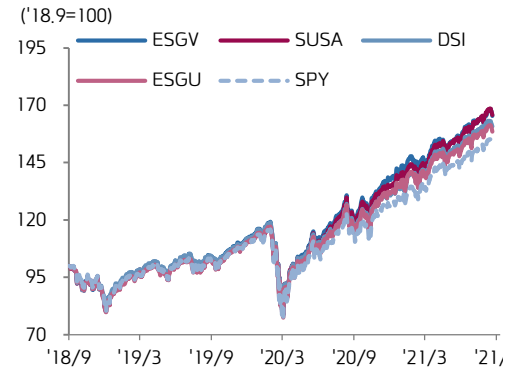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키움증권 리서치, 주) 21.6월 말 기준

## 대표 친환경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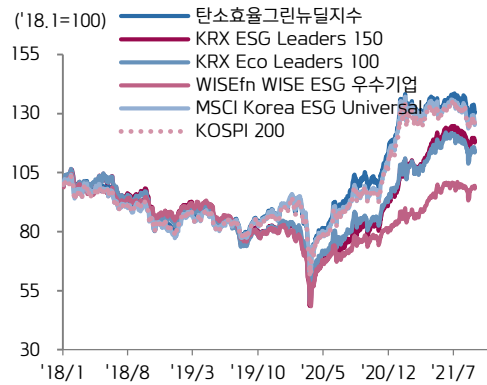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ESG 통합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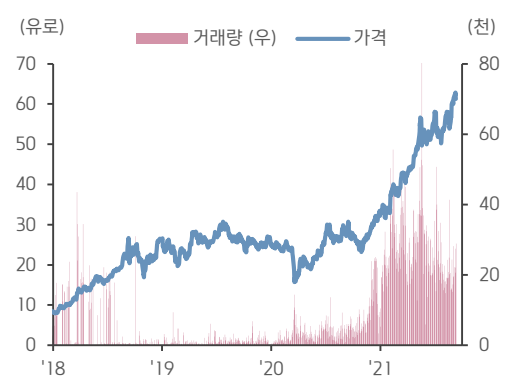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국내 대표 ESG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탄소배출권 가격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ESG ETF 주간 수익률

## 미국 ESG ETF 리스트 (1)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사회책임, ESG	0.15	22,234.1	-1.7	+0.2	+5.3	+18.9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사회책임, ESG	0.25	7,075.6	-0.6	+1.6	-4.4	+2.8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사회책임, ESG	0.20	6,782.5	-0.6	+0.4	+0.3	+11.6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2	6,023.9	-5.1	-1.1	+0.2	-20.1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ESG	0.12	5,246.9	-1.7	+0.5	+5.8	+18.8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ESG	0.10	3,918.6	-1.6	+0.3	+5.9	+20.9
USSG	Xtrackers MSCI USA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0	3,835.0	-1.7	+0.3	+5.4	+21.2
SUSA	iShares MSCI USA ESG Select ETF	ESG	0.25	3,796.0	-1.5	+0.7	+6.5	+21.8
DSI	iShares Trust -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	ESG	0.25	3,453.3	-1.6	+0.4	+5.5	+20.8
TAN	Invesco Sola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9	3,107.2	-4.2	-2.6	+4.4	-18.9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0	2,616.9	-3.9	-3.3	+0.7	-7.1
VSGX	Vanguard ESG International Stock ETF	ESG	0.16	2,591.6	-0.6	+1.0	-1.4	+9.3
PHO	Invesco Water Resources ETF	환경친화적	0.6	2,056.4	-1.9	+1.1	+9.9	+25.9
PBW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0	1,809.4	-4.5	-5.6	-10.8	-22.9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ESG	0.10	1,513.9	-0.2	+0.3	+0.7	-1.6
LCTU	Blackrock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15	1,410.6	-1.6	+0.3	+5.0	N/A
FIW	First Trust Water ETF	환경친화적	0.54	1,330.4	-2.2	+0.9	+7.4	+24.6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1,204.0	-1.8	+0.1	+5.2	+18.8
CGW	Invesco S&P Global Water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9	1,187.0	-1.8	+1.6	+9.1	+27.1
DRIV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	환경친화적	0.68	1,122.5	-2.1	-3.1	-0.8	+17.8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ESG	0.35	1,097.6	-2.2	-1.4	+0.2	+16.3
ESML	iShares ESG Aware MSCI USA Small-Cap ETF	ESG	0.17	1,088.5	-3.1	-1.0	-3.1	+15.8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1,057.2	-1.2	+0.3	+2.7	+14.6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ESG	0.40	1,022.5	-2.9	-1.3	-4.1	+14.7
SUSB	iShares ESG Aware 1-5 Year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2	1,011.7	+0.0	+0.1	-0.3	-0.5
ACES	ALPS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5	920.9	-4.5	-4.1	-5.3	-14.6
LDEM	iShares ESG MSCI EM Leaders ETF	ESG	0.16	886.1	-0.1	+1.9	-2.7	+6.6
NULG	Nuveen ESG Large-Cap Growth ETF	ESG	0.35	853.0	-1.3	+2.3	+11.1	+22.7
SUSC	iShares ESG Aware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8	821.7	-0.1	+0.6	+1.1	-1.6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탄소 배출권 트레이딩	0.79	790.6	-0.6	+7.9	+14.4	+62.1
SNPE	Xtrackers S&P 500 ESG ETF	ESG	0.10	757.6	-1.8	+0.1	+5.1	+19.8
LCTD	Blackrock World EX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20	614.2	-1.1	-0.2	-0.7	N/A
SDG	iShares MSCI Global Impact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566.8	-1.9	-0.3	-0.6	+5.6
GRID	F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0	551.3	-2.5	-2.0	+6.4	+20.5
KRMA	Global X Conscious Companies ETF	ESG	0.43	496.6	-2.2	-0.4	+4.4	+19.1
IQSU	IQ Candriam ESG US Equity ETF	ESG	0.09	477.5	-1.7	+0.4	+6.9	+19.8
EUSB	iShares ESG Advanced Total USD Bond Market ETF	ESG	0.12	449.9	-0.1	+0.3	+0.6	-1.3
USXF	iShares ESG Advanced MSCI USA ETF	ESG	0.10	430.9	-1.7	+0.2	+5.7	+20.2
IDRV	iShares Self-Driving EV and Tech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7	430.2	-1.3	-2.3	+0.4	+14.5
PBD	Invesco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5	410.7	-2.2	-0.4	-2.7	-15.4
ERTH	Invesco MSCI Sustainable Future ETF	환경친화적	0.65	409.6	-3.8	-2.1	-1.4	+0.1
FAN	First Trust Global Wind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0	399.4	-3.6	+1.8	+1.1	-7.1
NUMG	Nuveen ESG Mid-Cap Growth ETF	ESG	0.40	376.0	-1.6	+2.2	+9.5	+16.1
CNRG	SPDR S&P Kensho Clean Powe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5	361.6	-4.2	-4.0	-7.3	-11.5
EFIV	SPDR S&P 500 ESG ETF	ESG	0.10	336.1	-1.8	+0.0	+5.3	+19.8

자료: Bloomberg, 주) 2021-09-10 증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 미국 ESG ETF 리스트 (2)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PIO	Invesco Global Water ETF	ESG	0.75	328.3	-1.5	+1.4	+8.5	+23.7
SMOG	VanEck Vectors Low Carbon Energy ETF	환경친화적	0.62	297.4	-3.7	-1.2	+3.5	-4.6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사회책임	0.20	281.3	-1.9	-0.0	+3.7	+16.2
KARS	KraneShares Electric Vehicles and Future Mobility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2	265.3	-0.7	-2.6	+7.2	+18.7
NUBD	Nuveen ESG US Aggregate Bond ETF	ESG	0.20	264.1	-0.1	+0.2	+0.3	-2.4
JUST	Goldman Sachs JUST US Large Cap Equity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2	260.3	-1.9	-0.1	+4.4	+18.8
NUMV	Nuveen ESG Mid-Cap Value ETF	ESG	0.40	252.4	-2.6	-1.9	-0.5	+22.5
EFAX	SPDR MSCI EAFE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250.4	-0.7	+0.4	+0.7	+10.8
D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AFE ETF	ESG	0.12	249.7	-0.1	+2.0	+3.2	+12.8
BGRN	iShares Global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241.0	-0.3	-0.7	+0.9	-1.5
VCEB	Vanguard ESG U.S. Corporate Bond ETF	ESG	0.12	224.6	-0.1	+0.7	+1.0	-1.8
BATT	Amplify Lithium & Battery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	0.59	213.7	-0.2	-5.1	+2.0	+11.7
IQSI	IQ Candriam ESG International Equity ETF	ESG	0.15	209.7	-0.8	+0.4	-0.5	+11.9
IBD	Inspire Corporate Bond Impact ETF	ESG	0.58	202.9	-0.0	+0.2	+0.2	-0.9
KGRN	KraneShares MSCI China Clean Technology Index ETF	환경친화적	0.79	194.5	-2.2	-0.8	+1.2	+4.9
ESG	FlexShares STOXX US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32	185.4	-1.5	+0.0	+5.1	+19.3
ESGG	FlexShares STOXX Global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2	182.7	-1.0	+0.6	+3.5	+17.5
EEMX	SPDR MSCI EM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30	179.3	-0.6	+1.1	-5.2	+1.0
ETHO	Etho Climate Leadership US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177.6	-2.4	-1.0	+2.2	+15.3
LRGE	ClearBridge Large Cap Growth ESG ETF	ESG	0.59	173.4	-0.9	+2.6	+8.2	+17.5
EMNT	PIMCO Enhanced Short Maturity Active ESG ETF	ESG	0.27	173.1	-0.0	+0.0	-0.0	-0.1
CTEC	Global X CleanTech ETF	청정에너지	0.50	163.8	-5.2	-2.7	-0.1	-15.0
ESGA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Equity ETF	ESG	0.39	149.2	-1.4	+0.8	+6.5	+19.8
RNRG	Global X Funds Global X Renewable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5	145.1	-1.6	+3.0	+2.0	-9.6
NUDM	Nuveen ESG International Developed Market ETF	ESG	0.4	143.6	-1.0	+0.3	+0.3	+11.6
MXDU	Nationwide Maximum Diversification US Core Equity ETF	ESG	0.34	119.7	-1.8	+0.1	+2.3	+12.7
HYXF	iShares Trust iShares ESG Advanced High Yield	사회책임, ESG	0.35	118.4	-0.1	+0.6	+0.6	-0.1
LOWC	SPDR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117.3	-1.3	+0.3	+2.6	+14.2
NUEM	Nuveen ESG Emerging Markets Equity ETF	ESG	0.45	112.0	-0.9	-0.2	-4.6	+4.6
XVV	iShares ESG Screened S&P 500 ETF	사회책임, ESG	0.08	103.1	-1.6	+0.4	+6.1	+19.8
NUHY	Nuveen ESG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35	101.6	-0.1	+0.6	+0.1	-0.9
GRNB	VanEck Vectors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98.8	-0.2	+0.1	+0.1	-1.8
HKND	Humankind US Stock ETF	사회책임	0.11	93.5	-2.3	-0.7	+1.3	N/A
CHGX	Change Finance US Large Cap Fossil Fuel Free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9	93.2	-2.5	-1.2	+4.9	+18.0
RESP	WisdomTree US ESG Fund	ESG	0.28	88.8	-1.7	-0.5	+4.2	+19.3
EVX	VanEck Vectors Environmental Services ETF	환경친화적	0.55	69.3	-1.8	+0.1	+3.2	+22.6
VEGN	US Vegan Climate ETF	사회책임, 기후변화, 환경친화적	0.60	63.1	-1.5	+0.0	+5.9	+18.0
GSFP	The Goldman Sachs Future Planet Equity ETF	ESG	0.75	62.2	-1.5	+1.1	N/A	N/A
EBLU	Ecofin Global Water ESG Fund	ESG	0.40	58.3	-1.7	+1.0	+7.5	+22.0
HDRO	Defiance Next Gen H2 ETF	청정에너지	0.30	41.3	-5.3	-1.5	-13.7	N/A
EAOK	iShares ESG Aware Conservative Allocation ETF	ESG	0.18	39.3	-0.5	+0.3	+1.0	+3.5
XIH	iShares ESG Screened S&P Mid-Cap ETF	사회책임, ESG	0.12	38.8	-3.1	-1.9	-2.1	+16.1
STNC	Stance Equity ESG Large Cap Core ETF	ESG	0.95	36.6	-2.6	-0.4	+4.7	N/A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34.8	-1.7	-0.0	+5.3	+17.6
RESE	WisdomTree Emerging Markets ESG Fund	ESG	0.32	33.9	-1.0	+1.2	-5.0	+5.4

자료: Bloomberg, 주) 2021-09-10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 미국 ESG ETF 리스트 (3)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HJEN	Direxion Hydrogen ETF	청정에너지	0.45	33.4	-5.0	-1.2	-9.2	N/A
WOMN	Impact Shares YWCA Women's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31.5	-1.8	+0.2	+5.2	+17.4
ESEB	Xtrackers J.P. Morgan ESG Emerging Markets Sovereign ETF	ESG	0.35	30.7	-0.4	+1.1	-0.2	-2.5
RBND	SPDR Bloomberg SASB Corporate Bond ESG Select ETF	사회책임,ESG	0.12	30.1	-0.1	+0.7	+1.1	-1.6
NULC	Nuveen ESG Large-Cap ETF	ESG	0.20	27.2	-1.7	+0.5	+5.7	+20.1
JCTR	JPMorgan Carbon Transition U.S. Equity ETF	기후변화	0.15	27.1	-1.7	+0.1	+5.1	+19.9
ESGB	IQ MacKay ESG Core Plus Bond ETF	ESG	0.39	26.5	-0.1	+0.5	N/A	N/A
EMSG	Xtrackers MSCI Emerging Markets ESG Leaders Equity ETF	ESG	0.20	25.1	-0.4	+0.8	-5.4	+3.8
ESHY	Xtrackers J.P. Morgan ESG USD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20	24.5	-0.0	+0.7	+0.1	+0.5
E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M ETF	ESG	0.16	22.5	-0.9	+1.6	-3.1	+7.3
MID	American Century Mid Cap Growth Impact ETF	ESG	0.45	21.9	-2.0	+1.5	+13.3	+15.9
RAFE	PIMCO RAFI ESG US ETF	ESG	0.30	20.7	-2.1	-2.2	-0.6	+19.7
EAOA	iShares ESG Aware Aggressive Allocation ETF	ESG	0.18	20.4	-1.2	+0.3	+1.5	+11.6
EASG	Xtrackers MSCI EAFE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4	19.2	-0.7	+0.7	+0.3	+10.3
YLDE	ClearBridge Dividend Strategy ESG ETF	ESG	0.60	18.5	-1.1	-0.3	+2.3	+14.0
ECLN	First Trust EIP Carbon Impact ETF	청정에너지	0.95	18.2	-2.6	+0.0	+1.4	+7.6
XIR	iShares ESG Screened S&P Small-Cap ETF	사회책임,ESG	0.12	15.5	-3.9	-2.6	-4.3	+16.4
MOTO	SmartETFs Smart Transportation &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68	15.0	-1.5	-1.8	+1.6	+13.5
KESG	Kraneshares MSCI China ESG Leaders Index ETF	ESG	0.59	10.7	-1.2	-1.9	-9.8	-1.6
MIDE	Xtrackers S&P MidCap 400 ESG ETF	ESG	0.15	10.7	-3.1	-2.0	-2.4	N/A
LOPP	Gabelli Love Our Planet & People ETF	ESG	0.00	10.4	-2.7	-1.9	+0.9	N/A
SMLE	Xtrackers S&P SmallCap 600 ESG ETF	ESG	0.15	10.3	-3.8	-2.5	-5.4	N/A
ECOZ	TrueShares ESG Active Opportunities ETF	ESG	0.58	9.9	-1.8	-0.6	+5.8	+12.6
CBSE	Changebridge Capital Sustainable Equity ETF	ESG	0.85	9.7	-2.8	-0.6	-1.4	+23.2
PFUT	Putnam Sustainable Future ETF	사회책임,환경친화적	0.64	9.1	-1.5	+2.3	+8.7	N/A
AQWA	Global X Clean Water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50	9.1	-1.7	+1.0	+6.7	N/A
ESNG	Direxion MSCI USA ESG - Leaders vs Laggards ETF	ESG	0.40	8.8	-2.0	-0.1	+4.7	+22.2
BNE	Blue Horizon New Energy Economy 100 ETF	청정에너지,에너지	0.87	8.6	-2.3	-2.6	+2.1	+3.1
RESD	WisdomTree International ESG Fund	ESG	0.30	8.0	-0.5	+0.9	+0.4	+12.6
TEGS	Trend Aggregation ESG ETF	ESG	1.15	7.9	-2.2	+0.1	-1.2	+9.1
EAOR	iShares ESG Aware Growth Allocation ETF	ESG	0.18	7.9	-0.9	+0.4	+1.4	+8.5
ESCR	Xtrackers Bloomberg Barclays US IG Corporate ESG ETF	ESG	0.15	7.8	-0.1	+0.6	+1.0	-2.3
IVLC	Invesco US Large Cap Core ESG ETF	ESG	0.48	7.5	-1.9	+0.4	+5.8	+18.6
ESGY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Growth ETF	ESG	0.39	6.0	-1.3	+2.2	N/A	N/A
EAOM	iShares ESG Aware Moderate Allocation ETF	ESG	0.18	5.8	-0.7	+0.4	+1.1	+5.3
ESGN	Columbia Sustainable International Equity Income ETF	ESG	0.45	5.7	+0.5	+0.9	-1.5	+12.0
SDGA	Impact Shar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lobal Equity ETF	사회책임	0.76	5.6	-1.9	-1.4	-0.5	+9.4
SULR	SmartETFs Sustainable Energy II ETF	환경친화적,ESG	0.79	5.4	-1.2	+1.1	+8.0	+12.5
ESGS	Columbia Sustainable US Equity Income ETF	ESG	0.35	5.4	-1.8	-2.0	-3.5	+21.0
GBLD	Invesco MSCI Green Building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39	4.8	-3.6	-3.7	-9.1	N/A
FSST	Fidelity Sustainability US Equity ETF	ESG	0.59	4.8	-1.9	+0.2	N/A	N/A
LGBT	LGBTQ+ ESG 100 ETF	ESG	0.75	4.0	-1.8	-0.0	+5.1	N/A
FDWM	Fidelity Women's Leadership ETF	ESG	0.59	2.6	-2.3	-0.6	N/A	N/A
AVDG	AVDR US LargeCap ESG ETF	ESG	0.60	2.4	-1.7	+0.9	+4.4	+21.3
EPRE	First Trust TCW ESG Premier Equity ETF	ESG	0.85	2.1	-2.8	+0.0	+3.6	N/A
IVRA	Invesco Real Assets ESG ETF	ESG	0.59	1.9	-2.3	-0.3	-3.1	+21.0
DTOX	Amplify Cleaner Living ETF	청정에너지	0.59	1.2	-3.8	-4.4	N/A	N/A

자료: Bloomberg, 주) 2021-09-10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 ESG 자료 발간 목록

2021/09/03	키움 ESG 브리프 Weekly (9월 2주) <a href="https://bit.ly/3k57q5x">https://bit.ly/3k57q5x</a>
2021/08/30	키움 ESG 브리프 Weekly (9월 1주) <a href="https://bit.ly/3jLWSb9">https://bit.ly/3jLWSb9</a>
2021/08-2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4주) <a href="https://bit.ly/2WvRuuc">https://bit.ly/2WvRuuc</a>
2021/08/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3주) <a href="https://bit.ly/3gKxqki">https://bit.ly/3gKxqki</a>
2021/08/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3주) <a href="https://bit.ly/3g2EKHK">https://bit.ly/3g2EKHK</a>
2021/08/11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 글로벌 연기금과 펀드의 ESG 투자 <a href="https://bit.ly/2XmL6eu">https://bit.ly/2XmL6eu</a>
2021/08/09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2주) <a href="https://bit.ly/3g2EKHK">https://bit.ly/3g2EKHK</a>
2021/08/02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2Q21 글로벌 ESG 펀드 리뷰 <a href="https://bit.ly/3xugtOU">https://bit.ly/3xugtOU</a>
2021/08/02	키움 ESG 브리프 Weekly (8월 1주) <a href="https://bit.ly/3jPD1H5">https://bit.ly/3jPD1H5</a>
2021/07/26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5주) <a href="https://bit.ly/3A0gLAh">https://bit.ly/3A0gLAh</a>
2021/07/19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4주) <a href="https://bit.ly/3zwlBVV">https://bit.ly/3zwlBVV</a>
2021/07/12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3주) <a href="https://bit.ly/3imCdsq">https://bit.ly/3imCdsq</a>
2021/07/05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2주) <a href="https://bit.ly/36uDxmC">https://bit.ly/36uDxmC</a>
2021/06/28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5주) <a href="https://bit.ly/3HfREr">https://bit.ly/3HfREr</a>
2021/06/2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4주) <a href="https://bit.ly/3gYwU2C">https://bit.ly/3gYwU2C</a>
2021/06/1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3주) <a href="https://bit.ly/35GxDix">https://bit.ly/35GxDix</a>
2021/06/0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2주) <a href="https://bit.ly/3gjAleM">https://bit.ly/3gjAleM</a>
2021/05/3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1주) <a href="https://bit.ly/3uR3veI">https://bit.ly/3uR3veI</a>
2021/05/2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4주) <a href="https://bit.ly/3i283vZ">https://bit.ly/3i283vZ</a>
2021/05/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3주) <a href="https://bit.ly/3ugg4ce">https://bit.ly/3ugg4ce</a>
2021/05/1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a href="https://bit.ly/2QJyF7x">https://bit.ly/2QJyF7x</a>
2021/05/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1Q21 글로벌 ESG 펀드 리뷰 <a href="https://bit.ly/3bi8R97">https://bit.ly/3bi8R97</a>
2021/03/16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EU, SFDR 시행 <a href="https://bit.ly/3tL1sqA">https://bit.ly/3tL1sqA</a>
2021/02/02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4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a href="https://bit.ly/33jdTdi">https://bit.ly/33jdTdi</a>
2021/01/28	[ETF Issue] ESG, 금융시장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 <a href="https://bit.ly/3eQ4szl">https://bit.ly/3eQ4szl</a>
2020/11/10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3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a href="https://bit.ly/3tLgGci">https://bit.ly/3tLgGci</a>
2020/10/21	[ETF Issue] 패러다임 대전환 속 Green ETF 투자 <a href="https://bit.ly/3bqxpzu">https://bit.ly/3bqxpzu</a>
2020/07/13	[ETF Weekly] 바뀌어 가는 미래 <a href="https://bit.ly/3uPfpX0">https://bit.ly/3uPfpX0</a>
2020/04/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코로나와 거스를 수 없는 ESG <a href="https://bit.ly/2S0Cfkk">https://bit.ly/2S0Cfkk</a>
2020/02/13	[ETF Issue] ESG, ETF로 투자하기 ver.2 <a href="https://bit.ly/3w8O1DA">https://bit.ly/3w8O1DA</a>
2019/04/01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DSI.US)-글로벌 대표 ESG ETF <a href="https://bit.ly/3eMeq58">https://bit.ly/3eMeq58</a>
2019/03/29	[ETF Issue]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TF에 투자하기 <a href="https://bit.ly/3uzZz77">https://bit.ly/3uzZz77</a>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

**Compliance Notice**

---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고지사항**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